地理學 第28卷 第1號(1993) 58-66

日本 明治期의 韓國地理 關聯文獻

南 榮 佑*

主要語：明治期, 明治維新, 韓國地理

1. 머 리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계 열강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정책이 노골화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긴박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日本은 1858년 美·日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을 계기로 200여년 간 고수해온 쇄국정책을 포기하였다. 江戶幕府를 타도한 日本의 새로운 정부는 1868년 近代國家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하에 明治維新을 단행하고, 1873년에는 徵兵令을 공포하여 富國强兵策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른바 征韓論이 대두되어 日本은 軍國主義의 기반을 다지면서 인접국 한국연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각종 한국관계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本稿는 筆者가 日本에서 입수하거나 확인한 한국관계 문헌 중 明治期(1868~1912년)에 발간된 문헌만을 선정하여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여명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한반도의 地域硏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地誌·紀行 關聯文獻

1) **朝鮮八域誌**(1881, 李重煥 原撰·近藤眞鋤補 譯, 四六版, 日就社, 東京, 248p.)

原著者는 淸潭 李重煥으로, 本書는 국내에도 널리 보급되어 알려진 擇里志의 日本語 번역서이다. 본서의 번역자인 近藤眞鋤는 일본 外務省 管理官으로 부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에, 八域誌를 입수하여 抄譯하면서 物產·戶口·現地見聞記를 추가하여 단행본으로 본서를 발간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總說·평안도·함경도·元山津記·강원도·황해도·전라도·鎭江記·경상도·釜山記·충청도·牙山灣記·경기도·自仁川至京城記·喬桐記로 구성되어 있다.

2) **朝鮮地誌**(1881, 坂根達郎, 菊版和裝, 著者所藏本, 大阪, 51枚)

본서는 洋裝本은 아니지만 거의 완전한 서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書頭에는 花房 公使의 「山河歷歷」이라는 題字와 당시 서울의 사진이 동판인쇄로 수록되어 있고, 부록에는 「朝鮮國全圖」가 첨부되어 있다.

본서의 목차는 총론·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평안도·황해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한반도의 위치·지형·역사·풍속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그 나머지는 조선팔도의 地方誌이다.

3) **鷄林地誌**(1883, 宇津木貞夫, 菊版和綴, 內外兵事新聞局, 東京, 49枚)

저자 宇津은 京都 士族 출신으로 오랜 동안 육군 참모본부 요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본서의 내용은 주로 전국 팔도의 역사지리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耽羅·挹婁·夫餘·沃沮·歲貊·百濟·新羅·渤海 등에 관한 설명과 鷄林地圖가 수록되어 있다.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4) **朝鮮八道誌**(1887, 小松運, 四六版, 東山堂, 東京, 116p.)

저자 小松은 일본 육군 군의관 출신으로, 그는 象胥紀聞·懲毖錄·高麗史·朝鮮賦·大典會通·抄事撮要 등의 한국 古書와 일본 서적을 참고함은 물론이려니와 한국견문록을 참조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총론·위치·分界·지질·기후·연혁·政體·人情·풍속·敎法·學業·상업·공업·醫事 등에 관한 것과 各道別 地方誌로 구성되어 있다.

5) **朝鮮西伯利紀行**(1894, 矢津昌永, 菊版, 丸善株式會社, 東京, 132p.)

저자 矢津은 熊本縣 출신의 地理學者로, 본서를 간행할 당시에는 중학교 교사였으나 후에 육군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日本地文學」과「日本政治地理」를 비롯하여 本稿에서 후술하는「韓國地理」 등을 저술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1893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답사하면서 기록한 것을 단행본으로 엮은 기행문체의 저서이다. 그의 여행코스는 본서의 목차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九州—부산—울산—강원도 일대—원산—백두산—원산—염포—부산—長崎였다.

6) **朝鮮地名案內**(1894, 三橋僊史, 四六版, 農學社, 東京, 49p.)

본서는 프랑스 선교사가 10여년 간에 걸쳐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익힌 후에 그들이 편찬한 朝鮮地理字典을 참고하고 저자인 三橋가 1893년 한국여행을 하면서 조사한 사실을 수집하여 펴낸 것이다. 저자는 본서의 집필을 위하여 일본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들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확인을 거치기도 하였다. 地名은 한글의 子音順으로 배열해 놓았다. 卷末에는 저자가 한반도를 순회하며 조사한 사항을 보완한 韓國全圖를 수록하였다.

7) **新撰朝鮮地理誌**(1894, 大田才次郎 編, 四六版, 博文館, 東京, 262p.)

본서는 東藩紀要·象胥紀聞·朝鮮八域誌·朝鮮賦·大典會通·抄事撮要·高麗史·懲毖錄·朝鮮事情·朝鮮見聞錄 등의 문헌과 한국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저술한 한국지리 개론서이다. 본서의 1편 목차는 총론·제 1 장(지형, 기후)·제 2 장(산업, 무역)·제 3 장(인종, 인구, 연혁)·제 4 장(정치체제, 軍制, 學事, 종교)·제 5 장(풍속) 등이고, 2편은 各道의 地誌를 수록해 놓았다.

8) **朝鮮地誌要略**(1894, 松本謙堂, 四六版, 鍾美堂, 大阪, 93p.)

저자 松本은 한국에 동학란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전쟁에 대비한 韓國地理書의 간행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朝鮮誌·地方誌·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各地里程·渡津·경기도 부근의 地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韓國全圖와 度量衡의 韓日比較表를 수록하였다.

9) **渡韓見聞錄**(1901, 小川隆三, 四六版, 靜岡民友新聞社, 靜岡, 39p.)

저자 小川은 1900년 10월에 그의 친구와 함께 상업시찰을 목적으로 來韓하여 부산·목포·군산·인천 등의 항구도시와 서울을 돌아보면서 견문한 내용을 귀국 후에 친구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본서를 간행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渡韓理由·緖言·지세 및 하천·해안선 및 조석·기후·도로 및 교량·종교·군인·복장·가옥·혼인·장례·상업·공업·농업·양잠·무역현황·결론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朝鮮地名字彙**(1903, 小藤文次郎·金澤庄三郎, 三六版, 東京帝國大學, 東京, 88p.)

본서는 東京帝國大學의 小藤교수가 1900년과 1902년의 2회에 걸쳐 한반도를 답사하면서 기록한 地名과 洋書인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 중의 地名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본서는 同大學의 강사였던 金澤 박사의 도움을 얻어 한글철자법에 맞추어 교정을 가한 것이며, 1903년에 간

행된 小藤의 저서 ***Map of Korean Peninsula***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제 1 부에 韓音으로 된 地名을 로마문자와 한자로 표기한 것을 나열하였고, 제 2 부에는 漢字地名을 日本音의 로마문자 순으로 배열해 놓았다.

11) 韓國地理(1904, 矢津昌永, 菊版, 丸善株式會社, 東京 214p.)

저자 矢津은 육군대학 교수로 활약한 지리학자로서, 아시아地理 시리즈(高等地理 제 3 권)의 한국편으로 본서를 발간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지세·산맥·水系·기후·생산물·주민·교통·산업·정치·조선의 식민지적 자격·한국 풍속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韓國新地理(1905, 田淵友彦, 菊版, 博文館, 東京, 338p.)

저자 田淵 박사는 본서를 教授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행하였다. 또한 본서는 당시 한반도의 지리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독자와 지리학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된 것이다. 특히 지형에 관한 내용은 전술한 小藤 교수의 현지답사 결과를 많이 참고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편(地文地理)·제 2 편(人文地理)·제 3 편(八道處誌)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京城案內紀(1907, 上郵正己, 菊版橫綴, 日韓書房, 京城, 110p.)

저자 上郵은 1895년 漢城新報社에 입사하여 韓文報 편집장이 된 후, 大東新報의 주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905년 3월에는 한국정부의 學政參與官附 통역관에 임명되었고, 1906년 3월에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1907년에는 내각총리대신 李完用의 비서관이 되어 統監府 통역관과 學部 사무관 겸 번역관을 겸임하였다. 본서는 저자의 학부 사무관 재직시에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행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京城沿革의 大要·京城의 地勢·京城의 河流·京城으로부터의 地方通路·四大門과 四小門·시가지의 구획·城內의 街路·城內의 교량·전기철도 및 전등·관공서 및 회사·城內의 학교·신문·왕궁·명승고적·성내의 한국인 戶口·일본인 거류지·京城理事廳의 관할구역·이정표·한일조약의 종류·한국의 축제일 및 명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朝鮮各道著名地一覽表(1910, 韓國駐劄憲兵隊本部, 京城, 折本 1枚)

本表는 일본 헌병대원들의 휴대용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09년 12월에 조사한 결과를 수록해 놓은 것이다. 본표는 각 헌병대의 조사보고에 근거하여 주로 관할구역 책임자의 소재지를 비롯하여 호수·인구·관공서·명승고적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목차는 전국을 13道로 나누어 각 道誌의 개요를 서술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5) 鴨綠江 : 滿韓國境事情(1910, 大崎峰登, 菊版, 丸善株式會社, 東京, 240p.)

저자 大崎는 육군 공병대 소좌로 압록강 부근에 근무하면서 견문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장(압록강의 대세)·제 2 장(水流의 상태)·제 3 장(수운 및 교통)·제 4 장(연안의 상황)·제 5 장(연안의 상업 및 농업)·제 6 장(목재벌채의 연혁)·제 7 장(淸人 목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朝鮮新地理(1910, 地理硏究會, 菊版, 田中宋榮堂, 大阪, 256p.)

본서는 머리말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한일합방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동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리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취지하에 간행된 것이다. 본서는 地文·人文·地方誌의 3편으로 나누어 합방 당시의 새로운 한반도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곳곳에 實測하여 작성된 상세한 지도가 全卷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7) 京城と內地人(1910, 川端源太郎, 四六版, 城日韓書房, 京城, 240p.)

저자 川端은 1895년 12월에 來韓하여 서울에서 무역상을 경영하다가 1900년 8월에 대만으로, 1905년 10월에는 만주로 전전하였으며, 1909년

8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1911년 12월에 朝鮮實業新聞社를 창간했던 인물이다. 본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內地人(일본인)에 의하여 서울이 발달하고 있으며 일본인 없이는 서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망상 속에서 간행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장(개요)·제 2 장(居留內地人 發達史)·제 3 장(現勢)·제 4 장(교육)·제 5 장(위생)·제 6 장(종교)·제 7 장(교통 및 통신)·제 8 장(경제사정)·제 9 장(內地人의 諸經營)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朝鮮新地誌(1910, 足立栗園, 菊版, 積善館, 大阪, 315p.)

저자 足立은 明治時代의 손꼽히는 墨客으로 본명은 四郎吉이다. 그의 저서로는 朝鮮志(1894)를 비롯하여 臺灣志(1897)·東洋倫理大綱(1903) 등이 있다. 그는 일본에 합병된 한반도의 지리를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본서를 간행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장(위치, 면적)·제 2 장(연안, 항만)·제 3 장(지세, 도서)·제 4 장(산맥, 하천)·제 5 장(1督府 13道)·제 6 장(도시와 그 연혁)·제 7 장(교통, 운수) 등을 위시하여 총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馬山と鎭海灣(1911, 平井斌夫, 四六版, 濱田新聞店, 馬山, 186p.)

저자 平井은 마산에 거주하던 일본인으로 여겨지며, 그는 마산과 진해의 두 도시가 급속히 변모해 가는 와중에 본서를 집필한 듯하다. 특히 진해에 군사항구가 건설되면서 수반된 변화상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장 馬山編에서 관공서·농업·임업·목축업·상업·공업·수산업·교통의 순으로, 제 2 장 鎭海編에서는 군항지 개관·시가지 발전·해군용지의 임대 및 시가지의 경영·건축 및 토목공사·공장·高須통조림회사·목축·교육과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日鮮古代地名の研究(1902, 金澤庄三郎, 菊版, 朝鮮總督府, 京城, 31p.)

저자 金澤 박사는 東京帝國大 출신의 언어학자로 1898~1901년의 4년간에 걸친 한국유학의 경험이 있다. 1902년에 제출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韓日兩國語의 비교연구였다. 그의 저서로는 日韓兩國語同系論(1910)·日鮮同祖論(1929) 등이 있다. 그가 본서를 집필한 취지는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貊族으로 한민족의 대부분이 북방으로부터 남하한 종족임을 언어학적으로 논증하고 한국과 일본의 古地名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데 있었다. 본서에는 본문 31페이지 이외에도 18페이지의 獨文要約이 수록되어 있어 논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21) 李朝と全州(1909, 福島士郎, 四六版, 共存舍, 全州, 150p.)

본서는 조선왕조와 전주 간의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전주가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일본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저술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緖言·歷朝沿革·李朝의 연혁·李祖의 始祖·전주의 由緖·전주의 지세·전주의 연역·전주의 현상·전주평야의 현상·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3. 地圖 關聯文獻

1) 朝鮮圖細見全圖(1873, 染崎延房, 100×71.5cm, 丁字屋他, 東京)

本圖는 江戶時代의 극작가 染崎가 저술한 朝鮮事情(1874)과 1년 간격을 두고 간행되었다. 즉 본도를 설명하기 위한 부록으로서 상기한 서적이 집필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임진왜란 당시에 對馬島의 宗氏가 豊臣秀吉에게 헌납하기 위해 소장했던 「朝鮮繪圖」의 副本을 模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에 소장되어 있던 朝鮮繪圖와 石塚寧齊가 模寫한 本圖를 비교해 보면 兩者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본도의 하단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經緯道里 등을 기록해 놓았다.

2) 朝鮮全圖(1875, 佐田白茅 外, 32.5×48cm, 玄玄社, 東京)

본도는 佐田白茅·岸田吟香·松田敎朝의 합작

으로 간행된 지도이다. 明治政府는 1869년 12월에 對韓問題의 조정을 위해 佐田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본도는 그 때에 佐田이 한반도 지도를 모사하여 1870년 3월에 일본으로 갖고 간 것을 銅版으로 인쇄한 것이다. 이 지도의 하단에는 行程·物產·기후·산·하천·명승지 등을 기입해 놓았다.

3) **朝鮮輿地全圖**(1875, 關口備正, 62×33.5 cm, 淵倉屋外, 東京)

본도는 銅版 칼러로 인쇄된 것이며 常陸地方(現 茨城縣)의 關口가 제작한 지도이다. 본도의 출판처는 東京의 淵草에 있는 淵倉屋 이외에 2개 출판사로 기재되어 있다. 지도 속에는 朝鮮國八道行版表가 실려 있으므로 八道州, 府, 郡, 縣, 驛, 保의 갯수를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경위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朝鮮國全圖**(1875, 澤井滿輝, 36×69cm, 森本太助, 大阪)

본도는 銅版 칼러로 인쇄된 지도이며 여백에 國內八道州 郡縣名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본도는 林子平이 測度한 原圖에 기초하였고 懲毖錄 등을 참고했음은 물론, 실지답사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오차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5) **朝鮮八道圖**(1876, 樫原義長 縮圖, 48.5 ×35.5cm, 小谷卯兵衛, 大阪)

본도는 樫原의 原圖를 축소하여 銅版 칼러로 인쇄한 지도이다. 지도의 하단 여백에는 본도가 원래 道別 8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장으로 모아 구성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또한 各道의 地誌와 物產 등에 관한 韓國誌地를 개략적으로 기재해 놓았다.

6) **朝鮮國細道**(1882, 福城駒太郎, 45×34 cm, 개인출판, 東京)

본도의 編者인 福城은 茨城縣 출신으로 여러 종류의 저서를 출판한 바 있는 해박한 사람이다. 본도는 그의 저서 「朝鮮處分纂論」의 附圖로서 개인적으로 간행된 지도이며 정확성이 비교적 결여되어 있다.

7) **朝鮮全圖**(1882, 近藤眞琴, 59.5×40.5 cm, 山中市兵衛 外, 東京)

본도는 해양학자 近藤이 편찬한 銅版地圖로써 懲毖錄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본도에는 징비록으로부터 인용한 임진왜란의 개요를 발췌하여 군사·호구·物產·路程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元山津傍邑圖·江華灣圖·釜山近傍圖가 수록되어 있다.

8) **朝鮮國京城之略圖**(1883, 28.5×33.5cm, 熊本鎭台 參謀本部)

본도는 육군 소위 平井正衛를 비롯하여 林勝臣·淺野源次部·原田貢의 步兵들에 의해서 實測된 것이며 竹壽雄이 製圖한 1:1만 축척의 지도이다. 본도는 소위 道路測圖法에 의하여 묘사되었기 때문에 정밀도에 있어서 뒤떨어진다.

9) **朝鮮輿地圖**(1894, 淸水常太郎 編, 100×67cm, 中村鐘美堂)

본도에는 銅版 칼러로 인쇄된 「京城及京城接近地圖」·「釜山浦圖」·「元山港圖」·「漢江口及仁川港圖」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서울로부터 전국 각지까지의 이정표가 기입되어 있으며 朴泳孝의 題字가 표지에 실려 있다. 본도는 1893년 金玉均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 휴대했던 지도로 판명되었다. 본도에는 전국 州, 府, 縣, 郡의 兵營·水營·鎭·명승지·山川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10) **朝鮮內亂地圖**(1894, 星野惠一, 60.5×31cm, 田中太吉, 東京)

본도는 전라도 일대에 동학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지를 중심으로 간행된 지도이다. 二色印刷의 지도 여백에는 「朝鮮征討軍之將校」·「全羅忠淸兩道各地之里程」·「朝鮮在留之日本人」·「朝鮮隣國圖」가 수록되어 있다.

11) **朝鮮全圖**(1894, 東京地學協會 編, 75×48cm, 丸善·敬文館, 東京)

본도는 銅版 二色으로 인쇄된 지도이며 여백에는 「仁川近傍圖」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

른 여백에는 "조선에는 아직까지 實測地圖가 없으므로 地形을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어렵다. 본도는 기존의 여러 지도를 바탕으로 이미 조사된 내용과 한국여행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도의 해안선은 「內外水路圖」에 의거하였고, 地名은 「朝鮮官本八道分圖」를 참고하였다. 또한 州와 縣의 위치는 1875년 육군참모국이 간행한 「朝鮮全圖」에 의거하였다.

12) 朝鮮全圖(1894, 陸軍參謀局, 126×93 cm, 宇津木信夫, 東京)

본도는 1876년 육군문고로 출판된 것을 재간행한 지도이며, 본도의 부록인 「朝鮮全圖附錄」은 각 지방의 지명·정황·물산 등을 기재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본도의 여백에는 「釜山浦圖」·「大同江圖」·「漢江口圖」를 수록해 놓았다. 본도는 淸·英·美의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된 것이며, 지명은 함경도 출신 한국인의 협조를 얻어 韓國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13) 朝鮮海陸全圖(1894, 小橋助人, 132×86cm, 黑田一知, 大阪)

본도는 大東輿地圖·大淸統一輿地圖·朝鮮地誌類를 비롯하여 영국·미국·러시아의 海圖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본도의 여백에는 「漢江近海圖」·「竹邊灣圖」·「釜山浦圖」·「元山津圖」·「京城之圖」 등의 詳細圖와 한국의 각종 통계표를 수록해 놓았다.

14) 朝鮮全圖(1903, 小藤文次郎 編, 66.5×37.5cm, 丸善書店, 東京)

본도는 東京帝國大學 교수였던 小藤 박사가 편찬한 채색지도이다. 지명은 로마문자로 한국음에 의거하여 표기되어 있다. 본도는 小藤과 金澤庄三郎의 共著인 「朝鮮地名字彙」의 자매편에 해당한다.

15) 韓國京城全圖(1903, 京釜鐵道株式會社, 68×95.7cm, 贊贊舍, 東京)

본도는 二色 칼러로 인쇄된 축척 1:1만의 지도이며 여백에는 축척 1:8천의 「釜山日本居留地」 및 「大邱市街圖」가 수록되어 있다. 서울 지도는 매우 상세한 편이어서 19세기 말엽의 도로망·행정구역·주요 시설물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산 지도에는 용두산 주변의 일본인 거류지가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대구 지도에는 성곽내의 도로망과 주요 시설물이 기재되어 있다.

16) 京城市街全圖(1909, 靑木恒三郎, 45×74.5cm, 靑木嶋山堂, 東京)

본도는 서울의 都城 일대와 용산 일대를 나타낸 축척 1:12,000의 지도이다. 上揭한 韓國京城全圖(1901)가 지형을 등고선식으로 표현한데 비하여 본도는 우무식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단에 별도로 게재한 「龍山市街全圖」에는 일본 육군의 兵營과 신시가지의 도로망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4. 韓國事情 關聯文獻

1) 兵要朝鮮事情 (1884, 四六版, 180p.)

본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간행된 것으로 저자 및 간행 연도가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1884년 서울에 주재하던 육군 보병 高城義孝 대위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육군 참모본부의 語學生 및 육군 장교들이 동원되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편(지리)에 기후·물산·城堡, 제 2 편(제도·풍속)에 왕실·정부 및 관공서를 비롯하여 정치·학제·형벌·의복·음식·가옥 등을 기술해 놓았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나라 官民이 일본인에 대하여 대우해 주는지의 여부가 언급되어 있다. 제 3 편(兵制)에는 우리나라의 徵兵法·軍紀·훈련·무기·兵曹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제 4 편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朝鮮案內(1891, 林武一 編, 四六版, 東京 築地活版製造所, 東京, 113p.)

본서의 編著者인 林武는 한국공사관의 交際官試補로서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1892년 4월 귀국하던 중 배가 침몰하여 사망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죽은 후 인천에서 발행되던 朝鮮新報社에 의해 그의 약력과 초상화를 첨부하여 발매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日常과 한국의 交流史·李氏朝鮮·토지·호구 및 거류외국인·기후·교통·무역·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半島經營談**(1897, 大塚榮四郎 編, 菊版, 139p.)

본서는 編著者인 大塚의 강연내용을 발췌하여 간행된 일종의 연설집이므로 序文이 생략되어 있다. 大塚은 1880년부터 원산에서 무역업에 종사하였고 1910년에는 韓海漁業株式會社를 창립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본서에서 한반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4) **仁川事情**(1898, 藥師寺知龍·小川雄三 共編, 四六版, 朝鮮新報社, 仁川, 274p.)

본서는 일본인들이 인천에 정착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행된 안내서의 일종이다. 본서의 목차는 인천의 발달·상업 및 무역·한국의 行商·운수 및 교통·행정·교육·종교·생활·풍속·풍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한일조약 편람 및 일본인 상공편람 등이 수록되어 있다.

5) **釜山港勢一班**(1905, 相澤仁助 編, 菊版, 日韓昌文社, 釜山, 260p.)

편저자 相澤은 조선일보 기자로서 부산지사에 파견되었을때 東毅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본서를 간행하게 되었다. 본서는 1902년 부산의 거류민단장이었던 太田秀次郎이 부산항 및 그 주변의 발전상황을 本國인 일본에 보고하기 위해 출판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토지·행정 및 사법·상업·금융·교통·건설·산업·교육·위생·종교·인구 및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韓國漫遊案內**(1907, 堀川遠, 三六版, 盛文堂, 京城, 80p.)

본서는 한반도의 종단철도라 할 수 있는 경부선·경의선을 비롯하여 그밖의 철도를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출판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序言·철도안내·서울 및 부근안내·용산안내·인천안내·평양안내·진남포안내·한국어 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韓國最近事情一覽**(1908, 統監府, 四六倍版, 110p.)

본서는 「韓國事情一覽」의 속편으로 간행된 것으로서 각종 통계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목차는 在韓日本人戶口表·居留民團表·각지의 발전상황 일람표·在韓일본인 교육 및 보육기관표·한국광산지·한국금융기관 일람표·통신통계표·철도통계표·대한제국 세입세출표·한국정무기관 일람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仁川開港貳拾五年史**(1908, 仁川開港二十五年記念會, 72p.)

본서는 인천개항25년 기념회가 출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同記念會의 위원이었던 今井忠雄이 편찬한 저서이다. 본서의 목차는 제1편(인천발전의 상태)·제2편(인천항의 연혁사)·제3편(인천의 무역·금융)·제4편(교통 및 운수현황)·제5편(개항당시의 인천)·제6편(현재 인천의 상황)·제7편(인천항의 개척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9) **韓國忠淸北道一班**(1909, 忠淸北道觀察道, 菊版, 1002p.)

본서는 대한제국의 성립초기에 충청북도의 內務部長을 지낸 神谷卓男이 그 지방의 정황을 조사하여 기술한 것이다. 前編은 각종 상황을 286페이지에 걸쳐 총론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後編은 各郡의 정황을 716페이지에 걸쳐 각론적으로 설명한 방대한 분량의 저서이다. 본서는 충청북도의 지역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자료라 생각된다.

5. 經濟 및 產業關聯 文獻

1) **朝鮮內地調査報告**(1895, 岡崎唯雄, 菊版, 汲古堂, 熊本, 152p.)

본서는 농업·어업·상업의 세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전문가가 전국을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을

간행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총론에 해당하는 일반관찰(개항장·行商·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일본산물·한국인의 상업조직 등)과 각론에 해당하는 일부관찰(인천항, 한성부를 비롯한 각 지방의 지리)로 구성되어 있다.

2) **鴨綠江流域森林作業調査復命書**(1905, 西田又二·中牟田五郎, 菊版, 農商務省 山林局, 東京, 137p.)

본서는 압록강 유역의 삼림조사결과를 두명의 林務官이 제출한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꾸민 것이다. 西田은 주로 上流의 삼림을 조사하였고, 中牟田은 下流의 목재시장 설치방법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 본서의 목차는 甲編(총설·연혁·山野의 상황·주민생활의 상태·삼림의 개황·벌목과 운반방법 등)과 乙編(압록강 목재산출의 개황·목재기업·造材의 종류·목재시장의 관습·목재사업의 수지·압록강의 水路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韓國ニ於ケル棉作調査**(1905, 農商務省農事試驗場, 四六倍版, 東京, 111p.)

본서는 일본의 農商務 技師 田藤三郎이 農務商大臣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꾸민 것이다. 그는 1904년 한반도의 면화재배를 조사하기 위해 전라남도 진도 및 남해안 일대의 면화재배지역을 답사한 후 충청도와 경상도를 조사한 바 있다. 본서의 목차는 한국의 棉作地·면작지의 지세 및 토질·면작지의 기후·면의 종류·면화의 품질·면화생산액·목포의 면화수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한국면작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4) **韓國鑛業調査報告**(1906, 農商務省, 四六倍版, 東京)

본서는 일본 農商務省 鑛產監督局에 소속된 10명의 技師들이 1904~1906년 간에 걸쳐 한반도 각지를 답사하며 지하자원 조사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본서는 제1권(개설), 제2권(전라·경상도), 제3권(황해·경기·충남·평안남도), 제4권(강원·충북), 제5권(평안도), 제6권(함경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주요내용은 한반도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수탈에 목적을 두고 있다.

5) **韓國ニ於ケル農事ノ經營**(1906, 統監府農商工務部, 菊版, 京城, 57p.)

본서는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내한하는 농업시찰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토지의 선정·토지의 가격·토지의 구매, 한국의 농법·일본인의 이주·농사의 경영·한국 수해지의 농사경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농업식민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간주한다.

6) **朝鮮水路誌**(1907, 海軍水路部, 菊版, 696p.)

본서는 일본 해군에 의해 1899년 처음 출간된 것을 약 8년 간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본서의 목차는 제1편(총론), 제2편 서해안 북부), 제3편(서해안 남부), 제4편(남해안), 제5편(일본해 및 조선 동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7) **韓國酒造業調査報告**(1907, 清水千穗彦, 四六版, 統監府財政監査廳, 東京, 63p.)

본서는 저자 清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제1편(京城의 朝鮮酒類 釀造業)과 제2편(南韓地方酒造業)으로 나누어 한권의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본서의 내용은 술의 종류·주류 제조법·주류의 판매방법·양조장의 분포·주류 수입액 등이 기술되어 있다.

8) **國有各地種考**(1908, 度支部司稅局, 菊版, 京城, 35p.)

본서는 司稅局이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을 출판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堰畓·廢寺田畓 및 寺刹·基址·封山·竹田·楮田·楸田·果木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 **小作慣例調査**(1909, 度支部司稅局, 菊版, 京城, 105p.)

본서의 내용은 司稅局이 한국의 소작관례를 파

악하기 위해 토지이용의 방법,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소작제도의 연혁·소작의 종류·소작의 계약·소작인의 감독방법·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자작과 소작농지의 면적비교·소작인의 1인당 평균 경지면적·소작인의 빈부차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朝鮮產業誌 : 上·中·下**(1910, 1911, 山口精 編, 菊版, 實文館, 東京, 各卷 1000p.)

본서는 한반도에서 각종 사업을 경영해 보려는 일본인을 위해 편찬된 것으로 통감부의 감수를 거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上卷(농업·산림업·광업), 中卷(수산업·공업·상업), 下卷(금융·통화·교통 및 운수·각지 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釜山方面商工業調査**(1911, 伊藤鐐三郎, 四六倍版, 朝鮮總督府農商工部, 京城, 160p.)

본서는 1910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지낸 伊藤이 조사한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일반정황·공업·상업·초량 및 부산진의 상공업·동래 및 울산의 상공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朝鮮鑛產地**(1911, 農商工部鑛務課 編, 菊版, 朝鮮總督府農商工部, 京城, 217p.)

본서는 광산 및 토석채취업 허가·출원대장을 비롯하여 東國輿地勝覽·邑誌·韓國誌·韓國鑛業調査報告 등을 근거로 편찬된 것이다. 본서의 목차는 제 1 부(광산자원), 제 2 부(사금의 산지), 제 3 부(토석류의 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驛屯土實地調査槪要**(1911, 朝鮮總督府, 菊版, 京城, 31p.)

본서는 1909년 6월~1910년 9월 간에 조사된 국유지의 田畓槪要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본서에는 조사반의 편성과 조사방법, 조사에 대한 백성들의 감상, 미조사지역 등을 파악한 것과 토지등급의 결정 및 토지대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6. 맺 는 말

이상에서는 20세기를 전후한 日帝 明治期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관계문헌을 소개하였다. 本稿에서 열거된 문헌 이외에도 더 많은 한국관련 자료들이 간행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주요한 것들만 선정하였다. 本稿에 소개된 문헌은 그 소재를 전부 파악해 보지 못하였으나, 대부분은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헌들이다. 특히 각종 地誌書·紀行文·地圖類 등의 地理學 文獻은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우리나라 地域硏究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丸善株式會社에서는 「明治期刊本 마이크로化事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16만권에 달하는 明治期 刊行圖書를 마이크로 필림化하여 時價 1억 8천만 엔 상당의 1세트를 한국에 기증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지역연구에 보탬이 될만한 한국관련문헌의 작업이 뒤따랐으면 좋겠다.

(投稿 1993년 3월 31일)